



실생활에 녹아있는 안전으로 무재해 일귀 - (주)신성산업 -

몇 일동안 쏟아붓던 폭우가 잠시 주춤한 사이 하늘은 푸르름의 절정을 이룬듯
 청명하기 그지 없다. 청명한 하늘과 그 안에 두둥실 떠 있는 하얀 뭉게구름
 은 한 폭의 수채화를 감상하는 듯, 보는 이의 마음도 한껏 가볍게 만든다.
 기분좋은 아침,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기분좋은 안전현장 (주)신성산업(김우
 진 사장)을 방문하였다.

우리는 한가족, 신성가족

(주)신성산업은 1974년에 설립되어 1992년 지금의 (주)신성산업으로 개명한 후
 더욱 박차를 가하여 플라스틱 용기 생산에 주력해 온 곳으로, 30년 동안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플라스틱 용기 생산을 위해 전력 질주해 온 장인정신이 서린 기
 업이다.

더운 날씨에도 시원한 수박 한조각 나누는 여유와 따뜻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신



성산업은 노와 사의 구분보다는 신성가족이라는 말로 서로를 먼저 챙기고 아끼는 사랑과 정이 넘치는 현장이다. 그래서인지 이곳 식구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 피어나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레 안전의 무재해 꽃도 함께 피어난다. 지난 1월 무재해 10배수를 달성한 이곳은 흔히들 안전의 사각지대라 불리는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신성산업에 오면 얘기가 달라진다.

안전을 제외한 경영. Oh, No!

고객 만족을 위한 제일의 품질을 추구하는 신성산업은 모든 업무에 안전을 우선 시킨다. 안전하고 편안한 작업환경에서야만이 최고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김우진 사장의 확고한 안전마인드 때문이다.

평소 철저한 설비투자와 보호구 지급은 물론, 유사업종이나 인근지역 사고시 더욱 세심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신성산업을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철두철미한 안전경영은 신성가족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기초가 되었다. 현장식구들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경영층에서는 그러한 신성가족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이렇듯 모두가 어우르는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무재해 현장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정리정돈과 정신무장을 강조한다.

작업 시작전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체조와 불조심, 안전, 정리정돈의 생활화를 제창하고, 해이해진 마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며 자기 암시를 통해 안전한 작업을 유도한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실생활에 녹아 있는 안전환경을 이룩하는 것이다.


교육을 통한 안전마인드 고취

(주)신성산업은 분임토의나 아침조회 등 수시로 안전을 체크하고 관리하지만, 이외에도 월 2회 이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아차사고나 유사 사고 사례를 들어 직원 스스로 느끼도록 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습관화하여 생활 속 안전으로 이끈다.

뿐만 아니라 박예철 공장장은 현장 안전과 더불어 일상의 가정 안전도 함께 강조한다. 평소의 가정생활은 물론, 명절이나 휴가시 음식이나 교통 안전 등에 각별히 신경쓰도록 당부하며, 업무 복귀시 보다 철저한 안전 교육으로 미연의 사고를 예방한다.

이렇듯 아낌 없는 안전에 투자와 직원들의 안전마인드 고취를 통해서 무재해 10배수라는 금자탑을 쌓을 수 있었던 (주)신성산업은 포장 및 운송기계의 자동화 등 지금까지 해온 그들의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가 무재해 15배수, 20배수를 향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무재해로 인해 회사의 명예나 대외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 아닌, 신성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이곳 가족들의 모습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성숙된 안전문화와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차안에서도 신성가족이라는 가슴 따뜻한 단어에 미소가 떠나질 않는다. 

〈성호연 기자〉

